

# 게을리 생각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29면에서 계속

마음에 충족하게 있으니까 마음내는 것도 자유고, 불을 켜는 것도 자유고, 끄는 것도 자유고 같이 먹는 것도 자유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를 때에는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하는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다는 이런 거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 소가 도살장에 간다 또 가난한 사람이 병을 앓는다 이런 때도 한 생각 아무 조건 없이 방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짚에 와서 주인공을 믿어서 되잖아. 이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거를 떠나서 방생을 하세요. 고집 세우고 안 오겠다는 거 굳이 오라고 그러면 부러지죠. 그러니까 좋게, 언제나 이의하게, 팔이 쫓아 할 때 팔이 되고, 동생이 쫓아 할 때 동생이 되고, 아내가 쫓아 할 때 아내가 되고, 아주 끝간 데 없이 친구로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말, 행 자체를 부드럽게 가져야 해요.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우면 자꾸 나가죠. 따뜻한 데를 찾아서. 그래서 따뜻하게 해 놓으면 자꾸 들어오죠. 밝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받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이익을 도모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성을 진심으로 믿고 거기에는 모든 걸 놓는 공부를, 맡겨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좋게 생각하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해서 놓고, 언짢게 생각이 돼도 놓고 밀게 생각이 돼도 놓고 밀게 말하지 마시고요.

###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문** 사람들은 모두들 저마다의 욕 해 할 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을 만나서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된 저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공부를 해 나가다가도 '꼭 이 길밖에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스님께 여쭙니다.

**답** 지금 이 시대는 워낙 공중에서 탐지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렇듯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심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  
한 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터득해야 하고  
벗어나야!”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님께셔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들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

르거나와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 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나.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활에서 얼마나 쪼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라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 세상에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누구다,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자기가 형상시켜서 자기가 난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상시켜서 낳았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의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달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나큰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뿐이겠습니까. 생활이 불교고 불교가 생활이고 또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지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는데 어디에 억지를 뉘야 하느냐. 생활이란 가정생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얕은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만 그렇게 설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맡을 하지 않고 한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들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츠러져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써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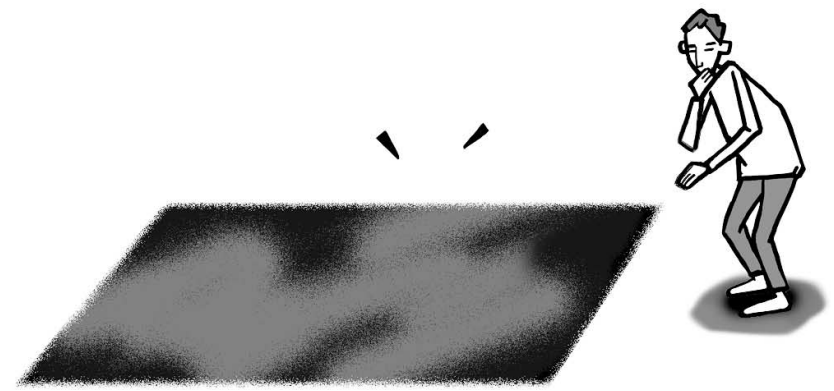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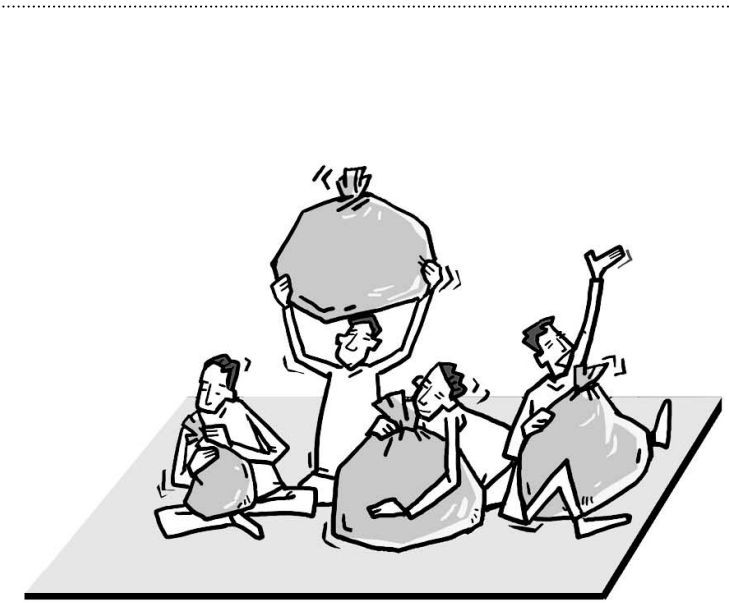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공 고

중령 2006-1

## 중회법 시행규칙

- 제1조** 이 중령은 중회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교구선거위원회는 대한불교 원효종 중회를 가진 승려로 하여야 한다. ② 중회를 가진 승려인 이상 입증연수나 법계에 대하여서는 관계가 없다.
- 제3조** 각 교구에서 승려가 없어서 5인의 선거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교구 중무원장이 선거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중령은 총무원장 중앙종도회장과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각 교구를 정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한다. (1) 대한불교 원효종의 각 교구는 원칙적으로 종단 직할교구(서울특별시)와 광역시와 도등 정부행정구역에 따라 정한다. (2) 등록사찰의 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에 수개의 교구를 둘 수 있다. 광역시와 도등 행정단위 내에 대한불교 원효종 등록사찰이 하나이거나 교구 선거위원 5명을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한 교구와 통폐합을 할 수 있다. (3) 다만 등록사찰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1년 내에 포교당이나, 사암을 개창하거나 또는 개창준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중령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중회법 제6조 제2호에 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중령은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다음

- (가) 중회의원선거를 고의나 과실로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으므로써 중회의원으로 선출된 의원 3명 이상이고 선출이 무효로 인정된 때
- (나) 중회의원선거에 관한 서류를 선출중회의원 임기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여 선출된 의원의 선출경위에 대한 적법성을 판별할 수 없게 할 때
- 제6조** 중령의 전항 해임처분은 해임대상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서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령이 해임하고 교구중무원장에 통고하여야 하며, 절차는 제6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제8조** 각 교구 중무원장이 전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고의나 과실로 기공한 때에도 중령은 전항과 같이 각 교구 중무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 각 교구에 중회의원에 소속된 유권자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거나 각 교구에 배정된 중회의원 임후보자가 유권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때에는 각 교구중무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 부 칙

- 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령 2006-2

##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불교 원효종 사무처 소재지로 중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130번지 소재 안양암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안양암이 불법점거 당하여 사실상 사무소 역할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안양암 회복시까지 임시 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구체적인 장소는 중령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 부 칙 (2006. 7.)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 공포와 함께 대한불교 원효종 사무소를 서울 중로구 창신동 6번지로 하였음을 공고한다.

중령 2006-3

## 중령 2005-2 중령의 임원에 대한 서리 임명에 관한 규정(이하 서리 임명규정이라고 함)개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왕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중령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서리로 임명된 임직원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부 칙 (2006.7.24)

- 제1조**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 본문 제2조 (중령은 원로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총무원장 서리등 기타 결원된 집행기관의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의 규정은 원로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령은 원로원 의견을 듣지 않고 임직원에 대한 서리 임명을 할 수 있다.
- 제3조** 이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7.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중령 김대관